

비타민 C 가격 사상최저 폭락

저가의 중국산 시장잠식 가속화 ... 중국 발효공정기술 우위

미국과 유럽의 비타민 C(Ascorbic Acid) 시장이 저코스트의 중국산 수입품이 시장잠식을 가속화하면서 가격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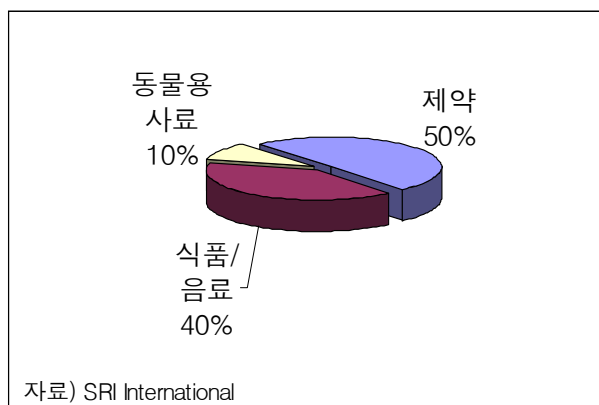
영국 컨설팅기관인 Hepner & Associates에 따르면, 저가의 중국산이 가격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비타민 C 가격이 최근 kg당 4.8달러로 폭락했다.

2003년 Roche의 플랜트 보수로 수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비타민 C 가격이 kg당 11-12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Roche 플랜트 정상 가동과 중국산 유입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SRI International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비타민 C 수입은 1993년 1600만파운드에서 2000년 3250만파운드로 증가해 총소비의 8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비타민 C 생산은 세계 총생산의 50-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산 비타민 C의 막강한 가격경쟁력은 생산기술 발달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주로 화학공정을 통해 비타민을 생산하는 반면, 중국기업들은 보다 경제적인 발효공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C의 적용분야



이에 미국 및 유럽기업들도 경제적인 생산공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Genencor International과 Eastman Chemical은 옥수수로부터 비타민 C를 추출하는 생물학 촉매공정(Biocatalytic Route)의 공동개발을 추진중이다.

양사는 옥수수 같이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해 일부 화학공정을 단축함으로써 코스트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SF Fine Chemicals은 제조공정의 최적화와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는데, 2003년 말 한국 군산 소재 비타민 B2 플랜트를 가동했고 비타민 A와 E 증설에도 착수해 2004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North East General Pharmaceutical Factory와 비타민 C 합작투자를 협의하고 있다. BASF는 2001년 Takeda Chemical Industries의 비타민 사업부를 인수한 바 있다.

BASF와 함께 비타민 메이저인 DSM은 최근 Roche의 비타민 사업부를 인수했다.

Hepner & Associates에 따르면, 비타민 C 시장은 전통적으로 연평균 3-4%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2-3% 성장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10>